

연산교회는?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등과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부산동노회)** 교단에 소속된 건전한 교회입니다.
1969년 4월 27일 연산기도소로 첫 예배를 드렸으며, 이후 연산동 지역과 부산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5일 김지원 목사가 8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 051) 862-1172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92

홈페이지 : www.yeonsanch.co.kr

유 튜 브 : ‘연산교회’ 검색

예배안내

오시는 길

주일예배		주중모임	
오전 예배	오전11시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
오후 예배	오후2시30분	수요기도회	저녁7시
청년부모임	오후12시30분		
꿈땅	오전11시 오후 1시	전 도 대	화 오전10시 목 오후 3시
꿈나무	오전11시 오후 1시	중보기도	정해진 시간
온세대 예배	매월 넷째 주일(오전예배)		
온가족새벽기도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오전6시)		

◀수영동명초교▶

서천기아타운▶

한일유엔아이 APT▶

◀연동초교▶

연산동주민센터▶

연산교회

연일시장▶

연산R

명장▶

연제구청▶

연산초교▶

사형

인덕동

교대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92

성기는 분들

교역자	장로	예배성김
위 임 목 사 김지원	시 무 장 로 양천식 한상무 이민주	지 휘 자 박보희
부 목 사 김동일	이영선 김인모	최희숙
유명희	은 퇴 장 로 권태환 이재흥 임근무	오 르 간 서희경
전 도 사 박새힘	김재영 정찬일 조미숙	피 아 노 권송이
협동전도사 정성광	황성국	김해든

공동체 소식

교회소식과 교우소식을 전합니다.

■ 예배 및 모임 ■

1. 정기제직회

오전예배 후, 글로리아 흠

2. 교사헌신예배

오후예배, 글로리아 흠

• 강사 : 김준모 목사(고신대 교육)

3. 1남선교회 월례회

오전예배 후, 소예배실(4층)

4. 1여전도회 월례회

오전예배 후, 세미나실1(4층)

5. 야외예배 및 체육대회 사역 평가회

오후예배 후, 소그룹실2(5층)

• 대상 : 친교부, 안수집사회, 차량부, 주님의 숲 부장

■ 교회소식 ■

1. 5/15(목)은 스승의 날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는 연산교회 교우들이 되길 바라며, 다음세대교회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 교구예배

5/18(주일) 오후2시30분, 지정된 장소

3. 새가족교육

5/18(주일) 오후1시30분, 소그룹실2(5층)

4. 주방봉사

이민주 이은영 황성환 박선희

5. 식당봉사

한상무 공은진 최현우 박보희

6. 경로나들이 찬조

• 김인모 나영희 양천식 이민주 이영선 전은경 한상무 황성국 황수향 2여전도회

7. 성경 400독 이어달리기

• 343 이영란 권사

8. 임명

김태은 집사(오후예배찬양팀)

■ 교우소식 ■

1. 입원

박정현 집사(전은경 권사, 그리심 목장), 센텀 바른길 병원 511호

2. 입원

강석주 집사(김미자 권사, 미스바 목장), 봉생병원 453호

교회 금주 공동기도제목

모든 공예배시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 교 회 - 다음세대 교회(꿈자람,꿈땅,꿈나무,청년부)의 부흥을 위하여

• 나 라 - 공명정대한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이 되도록

• 성 도 - 흰 옷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제57권 19호

2025. 5. 11

대한예수교장로회

YeonSan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김지원

연산교회

우리의 사명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

표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

교회창립 1969년 4월 27일

주일예배

오전 11시 김지원 목사

* 예배로 부름	요4:24	인 도 자
* 기 원		인 도 자
* 입 레 찬 양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다 갈 이
* 참회의 기도		다 갈 이
* 사죄의 선언	사1:18	인 도 자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 경배와찬양	다음세대 찬양팀	다 갈 이
공 동 기 도		다 갈 이
기 도		김인모장로
찬 양	예수는 나의 힘	할렐루야성가대
성도의 교제		인 도 자
성 경 봉 독	계7:13~17(신407p)	인 도 자
말 씀 선 포	「 흰 옷 입은 자들 」	김지원목사
찬송및봉헌	모든 민족과 방언들	다 갈 이
* 결 단 의 기 도		다 갈 이
* 봉 헌 기 도		김지원목사
* 축 도		김지원목사
* 표시는 일어섭니다.		

다음주 담당자

다음 주 기도		봉 사	
주일예배	공은진 권사	봉헌	김 욱 집사
오후예배	교구예배	주방봉사	이영선 이보영 김남표 서희경
수요기도회	박선희 집사	식당봉사	이민주 이은영 황성환 박선희

<교사헌신예배> 인도 : 정윤미 권사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 도 양천식 장로 •특 송 다음세대교회 교사 •성경봉독 롬1:16(신239p) •설 교 김준모 목사 『부끄럽지 않은 복음』 •봉헌기도 전은경 권사 •봉헌찬송 찬50장 •축 도 김준모 목사	
---	--

- 사사기,룻기 - 김지원 목사	
< 아들람 하우스를 위한 기도 > • 하나님의 일꾼들이 언제라도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쉼의 장소가 되도록 • 아들람 하우스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 5/11(주일)	정기제직회,교사헌신예배	• 국내교회 : 해운중앙교회, 물뎃동산교회
• 5/18(주일)	교구예배	• 선교단체협력 : WEC, CP
• 5/25(주일)	온세대예배,목장모임	• 해외선교
• 5/31(토)	온가족새벽기도회	이준기, 이은실(파송-캄보디아)
		양 파블루스 선교사(후원-T국)
		이상주 선교사(후원-필리핀)
		아들람 하우스(선교사 쉼터)

요21:15~17 15...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도신경	사도신경으로 목장모임을 시작합니다.
찬 송	찬송가 303장, 315장, 325장 중 택1
설교말씀	“잊지 못할 기억”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담화입니다. 지금 대화하는 장소와, 세 번의 질문이 의도하는 내용 속에, 베드로가 잊지 못할 세 가지 기억을 통해,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잊지 못할 기억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던 순간입니다. (눅5:8) 3년 전, 베드로는 디베라 호수에서 밤새 수고하였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 자신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만선을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나와 동업합시다.’가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개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이 은혜를 디베라 호수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고, 말씀이 들려지고, 십자가가 주어져 있다는 건,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심으로 구원의 잊지 못할 기억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잊지 못할 기억은,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순간입니다. (요6:68-69)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 인근에서 일으키신 오병이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66).”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67)” 거기에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68,69)” 이 지점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오병이어가 아닌, 예수님께 인생을 바치기로 결단한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잊지 못할 기억은 그의 신앙고백입니다. (마16:17-18)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16)”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네가 참 복되다. 내가 너의 그 신앙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17,18)” 교회가 서는 복을 받은 그 기억을 어찌 잊겠습니까? 결국 베드로와 같은 신앙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가 어디죠? 우리가 신앙고백 하는 그 자리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의 신앙고백 하는 그곳이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신앙고백 하는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일평생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실 때, 베드로는 이러한 기억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바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잊지 못할 기억들 중에, 예수님으로, 교회로 인한 잊지 못할 기억들이 우리에게 생겨, 평생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 설교 말씀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2. 우리 인생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3. 우리 개인이 가진 신앙고백은 무엇인가요? ☞ 설교 말씀을 기준으로 삶에 적용해야 할 내용을 나누세요! 1.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 됨’을 깨닫는 시간을 나누어 보세요. 2.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시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3. 교회 됨을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김금지	김미숙	김성분	김옥임	김 욱	김인수	김태순	나영희
	서분이	윤임순	이보영	이영란	이호윤	전월숙	정성광	정찬일
	정현진	조미숙	최우금	최정옥	최해관	최희숙	추경숙	한상무
	황신숙	황현덕						
감사헌금	강미애	강장희	강철동	권태환	김남표	김미숙	김선용	김성분
	김성완	김옥임	김 욱	김은호	김재영	김종분	김지원	김태순
	깨람아트	나영희	반영호	엄정임	윤병희	윤옥자	이경화	이다운
	이보영	이영선	이윤진	이재흥	이종선	이지윤	이호진	장인애
	정찬일	정창식	정현진	조수아	조 이	진영림	최정옥	최진숙
	최희숙	한건희	한상무	한형성	황성국	황신숙	황일석	황점옥
선교헌금	김복순	김성분	김순자	김옥임	김 욱	김의수	김재영	김종분
	나영희	박성애	서분이	손정일	송정순	오재철	윤임순	이봉엽
	이영란	정찬일	정현진	조미숙	최정옥	추경숙	황신숙	황현덕
	황화남							
전도헌금	김미숙	김복순	김성분	김순자	김옥임	김의수	김태순	나영희
	박성애	서분이	이봉엽	이영란	이은영	전월숙	정찬일	정현진
	조미숙	최정옥	황신숙					
장학헌금	김미숙	나영희	박성애	이영란	정현진	조미숙	추경숙	황화남
구제헌금	김금지	김미숙	김 욱	나영희	박성애	이영란	정현진	조미숙
	최희숙	황성국						
건축헌금	김남표	김미숙	김복순	김성분	김옥임	김 욱	김종분	나영희
	서분이	손정일	송정순	오재철	이봉엽	이영란	이은영	전월숙
	정찬일	정현진	조미숙	최정옥	최희숙	황현덕	그린나래	
목적헌금	김인모	양천식	이영선	한상무				
주일헌금	장년부							

• 일반헌금(십일조, 감사헌금) - 부산은행 113-2012-0651-02 연산교회
• 특별헌금(전도, 선교, 구제, 장학) - 부산은행 113-2012-0654-01 연산교회
• 건축헌금 - 부산은행 113-2012-0657-00 연산교회